광주 연구개발비 3년 연속 특·광역시 꼴찌

2020년 광주 9539억·전남 7041억원…17개 시·도 중 13~14위
전국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비중 78%…광주·전남 평균 밑돌아

지난 2020년 기준 광주·전남 연구개발비는 1조 6581억원으로, 10년 전보다 65.2%(654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연구개발비는 3년 연속 7대 특·광역시 최하를 기록했고,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매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지역 연구개발비는 광주 9539억원·전남 7041억원 등 1조 65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광주는 15.4%(1271억원) 증가하고 전남은 2.7%(-197억원) 감소한 규모다.

과기부는 지난 2020년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6만9641개가 수행한 정부·공공, 민간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보다 4.5%(4조 246억원) 증가한 93조717억원(789억달러)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이다. 1위는 2019년 기준 6575억 달러를 연구개발에 들인 미국이다.

광주·전남 연구개발비 규모는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65.2%(6546억원) 뛰었다.

지난 1995년 1619억원(광주 1083억원·전남 537억원)이었던 연구개발비 총액은 ▲2000년 광주 2004억원·전남 1184억원 등 3189억원 ▲2010년 광주 5209억원·전남 4826억원 등 1조35억원 ▲2015년 광주 7332억원·전남 5739억원 등 1조 3071억원 등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광주·전남 연구개발 투자는 매년 전국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다. 광주 연구개발비는 3년 연속 7대 특·광역시 중 꼴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47조451억원)였다.

경기와 서울(14조4320억원), 인천(2조9366억원) 등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전남과 광주는 제주(2316억원), 강원(5551억원), 세종(6115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낮았다. 이 같은 순위는 전년(2019년)에도 동일했다.

문제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정부투자기관을 뺀 민간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비 비중은 광주 40.2%·전남 49.2%로, 전년보다 각각 3.3%포인트·7.0%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비중은 78.1%(93조717억원 중 72조7238억원)로,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민간기업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95.4%)로, 무려 44조8579억원이 민간으로부터 나왔다.

광주지역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비중은 20년 전에는 54.8%였지만 2010년 48.0%, 2015년 44.3%, 2020년 40.2% 등으로 줄어왔다.

전남 민간기업 비중은 68.3%(2000년)→65.4%(2010년)→45.7%(2015년)→49.2%(2020년) 등으로 오르락내리락했다.

2020년 기준 광주 민간기업 연구개발비는 3836억원으로, 전년보다 6.5%(236억원) 증가했다. 전남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액은 4071억원에서 3461억원으로, 15.0%(-610억원) 감소했다.

2020년 한 해 연구개발비를 연구수행주체별로 나눠보면 광주지역에서는 민간기업 비중이 40.2%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대학 32.2%(3072억원), 사립대학 7.1%(676억원), 공공연구기관 20.5%(195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민간기업 49.2%와 공공연구기관 27.7%(1950억원), 국·공립대학 16.8%(1179억원), 사립대학 2.2%(152억원) 등으로 나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광주전남본부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훈련

질식사고자 구조훈련 교육 등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는 1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일곡동 구조물에서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구조물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본부는 전문가를 초청해 작업자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절차 및 질식사고자 구조훈련 교육을 했다.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돼 한전 인재개발원과 광주권 25개 지사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은 한전 광주전남본부와 본사 캡코119 재난구조단이 협업해 진행했다.

한전 직원 20명과 협력회사 직원 28명 등 총 55명이 참석했다.

김상권 본부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작업현장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작품 품은 삼성 '더 프레임' 삼성전자는 최근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에서 '네오(Neo) QLED 8K', '더 프레임' 등 2022년형 TV 신제품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액자형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을 통해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의 대표 작품 20점을 글로벌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매년 약 200만명이 방문하는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은 동남아시아 전역의 근현대 미술 작품을 폭넓게 소장한 곳으로, 이번에 삼성전자 TV를 통해 싱가포르 미술관의 예술 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제공〉

'위축된 채용시장' 비대면으로 활력 불어넣다

전남도 일자리 키오스크 활용 구인·구직 만남의 날 디지털면접

코로나19 장기화로 채용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전남도가 전남 동부권 기업의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비대면 채용의 장을 열었다.

전남도는 일자리창출과 구인·구직 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제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지난 13일 전라남도일자리플랫폼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면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대면 채용솔루션 '일자리 키오스크'를 활용한 비대면 디지털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직자와 면접관이 직접 만나지 않고 키오스크로 면접 동영상을 촬영해 채용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순천·광양의 구인기업을 위한 맞춤형 채용 자리로, 일자리통합정보망에서 관리하는 3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기업은 5월께 개인적으로 합격 통보를 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채용에서 뽑히지 않은 인력도 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 지속해서 사후관리하며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2차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5월 전남 서부권역 구인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일자리 키오스크는 최근 전남일자리플랫폼 개소와 함께 변화하는 채용시장 추세를 반영해 도입됐다. 구인·구직자 간 채용절차 간소화로 정보접근성을 높여 성공적 인재 선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농축산물 3000만달러 수출 목표

수출협의회 정기총회

광주·전남지역에서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농협 조합장 30여 명이 올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

14일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이날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서 광주·전남 수출농협 조합장 30여 명과 '광주·전남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수출 실적을 분석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광주·전남 지역농협들은 지난해 배와 파프리카, 유자 가공식품 등 40여 개 품목 2700만달러 상당(331억원)을 수출했다.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과 미국, 대만 등 30개 국가가 넘는다.

고흥 유자차가 주요 수출 품목인 두원농협은 유자 가공식품 520만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두원농협은 지난해 농협중앙회 주관 수출농협 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 기준 농협 전남본부의 수출 실적은 820만달러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436만달러 상당을 수출한 배와 파프리카(137만달러), 유자 가공식품(136만달러) 등이 있다. 배는 지난해 작황이 양호해 전년보다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해외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수출품목 다양화 와 수출시장 다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금년도에는 3000만달러 이상 수출액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전남TP,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원 수혜 기업 선정

28개사 선정…최장 3년간 지원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는 최근 전남지역 수출 증진에 기여할 '2022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선정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선정된 글로벌 IP스타기업은 (주)도이프, (주)레오바이오, (주)리우, (주)마이벨로, (주)매그나텍, (주)삼우에코, (주)에릭스, (주)에스컴텍, (주)엠티에스, (주)웨이브쓰리디, (주)위더스에프앤비농업회사법인, (주)천연스토리, (주)청담은, (주)플러버, (주)픽슨, (주)한국시과학연구소, (주)휴먼아이티솔루션, 그린씨에스(주), 농업회사법인(주)보향다원, 농업회사법인(주)지인, 데이앤바이오(주)농업회사법인, 모아푸드(주), 씨플러스(주), 아이오티플러스(주), 어업회사법인(주)벌교꼬막, 엘페, 제니스테크놀러지, 한영타이어(주) 등 모두 28개사다.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특허·브랜드·디자인 분야 개발, 해외출원비용 등 다양한 사업을 연간 7000만원 이내에서 최장 3년간 지원받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1. 해광, 샹그릴라 APT
- 선암동, 공105㎡ 전82㎡
- 10층, 101동, 남향, 조망 좋음
- 즉시 입주가.
- 매매 – 4억 5000만원 (일시불 조정가)

2. 신안동, 상업용지
- 대지582㎡, 알반 상업 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최고요지
- 매매 – 21억

3. 대인동, 상업용지
- 대지515㎡, 알반 상업 지역
- 롯데백화점 부근
- 매매 – 19억

4. 오피스텔, 급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계 108㎡, 전 67㎡
- 내부깨끗, 창가쪽, 전망 좋음
- 매매 – 1억 1000만원 (토지와 교환가능)